

# 韓國 考古學의 發展 1

## —舊石器·新石器時代研究—

金 元 龍\*

### 序 言

이 小稿는 解放後의 우리 考古學研究의 發展을 主로 論著面에서 回顧·評價하려는 것이며 作業의 性格上 우리나라뿐 아니라 外國學界에서의 研究成果도 그 重要한 것은 우리側의 研究와 關連시켜 함께 言及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論著의 內容을 書評形式으로 仔細히 다루는 것은 全體的인 統一성과 脈絡維持를 어렵게 하고 作業量을 膨大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主要한 論點만을 골라 學說의 變化, 文化內容糾明의 發展 등을 把握하기 쉽게 하는 方法을 取하였다. 時間과 精力이 있으면 좀 더 깊이 파헤치고 發掘, 分析, 復元 등 研究方法 그 自體까지도 論議의 對象으로 해야 할 것이나 現在의 筆者環境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러한 作業은 將次를 기다린다는 陳腐한 辯明으로 그칠 수 밖에 없는 形便이다. 그러나 이 小稿의 續篇이 될 青銅器時代 以後의 部分에 대해서는 곧 붓을 이어 나갈 생각이다.

#### 1. 舊石器時代

韓國에서의 舊石器考古學은 1964년 孫寶基(延世大)에 의한 公州郡 石壯里(1962年 發見)의 發掘로써 幕을 열었다. 石壯里遺蹟의 發掘은 斷續的으로 1972년까지 계속 되었으나 堤川점말洞窟(1973年), 清原두루봉洞窟(1976年) 등으로 發掘作業이 옮겨지면서 發掘은 一段落 되었다.

\* 서울大學校 人文大 教授(考古學)

石壯里 유적은 3箇地點이 發掘되었는데 全體的인 單一報告書는 나오지 않았으며 「層位를 이룬 石壯里 舊石器文化」(歷史學報 35·36, 1967年), 「석장리 자갈돌 찍개 文化層」(韓國史研究 1, 1968年), 「석장리 후기 구석기시대 주거지」(延世論叢 8, 1970年), 「석장리의 새기개·밀개 文化層」(韓國史研究 5, 1970年) 등의 論文으로 分離 發表되었고 以上 論文들을 綜合한 石壯里 文化에 대한 既往研究의 決算이 國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I (1973年)에 發表되었다.

손보기는 石壯里 第一地點(Loc. 1)을 基準으로 石壯里 舊石器 文化를 編年하고 있으며 Loc. 1의 27개 自然地層中 아래부터, 즉 지층 27~15a가 前期 舊石器時代로서 민델·리스 두 氷河期와 對應하는 時期이고 文化層으로는 아래부터 1~6의 6箇文化層(각각 지층 27, 26, 21, 19, 17, 15, 15a층에 該當)이 그에 包含되며 石器는 주로 直接 打擊法에 의한 石英 岩 찍개(Chopper, Chopping-tool), 손도끼(Handax), 긁개(Scraper)이고 姆돌(Core, 石核)로 만든 것이 압도적이라고 報告하고 있다.

中期 舊石器는 地層 14~11로서 文化層은 7(지층 13), 8(지층 12), 9(지층 11)이며 굳은 粘土層인 14~12 지층은 間氷期, 11地層은 第4氷期(뷔름)의 II, III 溫期(Interstadial)에 對應하며 石器는 石英岩 아닌 珪質 岩, 斑岩으로 만들었고 긁개(scraper), 찍개, 찌르개(point)는 여전히 나오나 石器가 小形化하고 잔손질(修整打, retouch)이 늘고 날을 세울때 외날 爲主에서 쌍날(斷面이 조개처럼 兩面을 메어서 단든 것)이 늘어나고 또 톱니날(Denticulate)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1982年 8월에 文公部 招請으로 來韓한 舊石器 考古學者 J.D. Clark는 以上 石壯里의 下層出土石器들을 延世大 博物館에서 見學하고 또 現地를 踏査한 뒤 石器에는 人工의 痕跡이 없고 地質學的으로도 後期 舊石器 以前 段階의 文化는 없다고 하여 이 石壯里에서의 前期·中期 舊石器文化存在에 대해서 異見을 내놓았다.

石壯里의 後期 舊石器時代의 地層과 文化層은 孫寶基의 論文을 통해

서는 正確히 把握할 수 없는 部分이 있으나 地層으로는 10층 以上이고 文化層은 10文化層(8地層), 11文化層(6地層), 12文化層(5地層)으로 되어 있다. 石器는 斑岩 以外에 黑雲母, 石英, 片岩이 쓰이고 있으며 scraper, end-scraper, point, 그리고 石刃(blade)과 石刃을 떼낸 多稜形 돌(prismatic core)이 나온다.

한편 孫寶基는 Loc. 1에서 집자리의 發見을 報告하여 20,830±1880B.P.라는 放射性炭素年代와 함께 花粉 12종, 그리고 「門쪽을 向하여 세운 개 모양 石彫刻」, 「住居址 땅바닥에 陰彫刻한 고래形態」, 外에 猪形石, 사냥개形石, 鳥形石 등 石彫刻의 存在를 發表하고 있다.

石壯里에서의 後期 舊石器文化存在는 放射性炭素年代를 包含해서 學界의 認定을 받고 있으나 中期·前期文化는 地質學의 뒷받침 없는 石器의 形態, 製作法, 用途別構成, 其他 特殊 指數 등 주로 石器의 考察에 依한 것이어서 國內外 學界의 反應이 엇갈리고 있음을 免치 못하고 있다. 또 研究方法에는 外國學界의 方法을 其時其時 導用해서 쓰고 있으나 分析·分析結果의 解釋에 앞서 資料의 正確性에 全的인 信賴를 받을 수 없고 研究方法 그 自體보다 그 方法의 適用妥當性, 分析結果의 妥當性 등 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이 孫寶基의 韓國舊石器文化研究에 대한 開拓者的 勞苦에도 不拘하고 그 成果를 받아들이는 데 學界의 格吝原因이 있다고 하겠고 그것은 결국 孫寶基가 舊石器 考古學의 正式訓練을 받지 않은데서 오는 研究上의 限界性이 潛在的 原因으로 되고 있고 특히 그것이 外國學界에서의 反應으로 나타나 石壯里 研究史가 이제 20年에 가까와 오면서 國際 舊石器 學界에서 石壯里의 이름이 거의 無視되고 있는 原因이 되고 있는 듯하다.

實地로 石壯里의 最下層인 第一文化層의 경우를 一例로 들어 볼 때 그 發掘面積은 1.0×1.5m의 극히 좁은 面積이고 出土石器總數도 不過 23點인데 그 속에서 부엌 調理用 石器가 39.1%이라고 하여 이것이 住居址였다고 보는 것은 外國學者(Binford)의 方法을 그 適用妥當性, 科學性

의 批判없이 그저 試用한 것 밖에 안되고 重要한 結論이 너무 簡單하게 形式的으로 導出된 흠이 있으며 結果적으로 도리어 誤謬를 일으킬 危險性을 지니고 있다.

또 소위 各種 動物의 彫刻石像에 관해서도 그 純全한 主觀的 觀察과 解釋은 國內學者들로 부터도 批判을 받고 있으며 鄭永和(歷史學報 72집, 1976年)는 우선 同一 地點에서 前期 舊石器로 부터 後期까지의 文化堆積이 繼續될 수 없고 舊石器時代의 개(犬)存在自體가 問題이니만큼 犬形彫刻은 믿을 수 없다고 하였고 黃龍渾(歷史學報 84집, 1979年)도 「客觀的 評價가 없는 資料를 彫刻品이나 기타 美術品으로 취급한 것은 단순히 主觀的 觀察에 依據한 것」이라고 評하고 있다.

한편 孫寶基는 74年 부터는 새로 忠北 堤川 浦田里 점말의 용굴 洞窟의 發掘에 着手하였고 다시 76年 부터는 忠北大의 이용조와 함께 忠北 清原郡 蘆峴里의 두루봉 洞窟, 1981년에는 忠北 丹陽 上詩洞 洞窟을 發掘, 上詩洞에서는 네안데르탈系人 骨片의 發掘을 主張하였다.

점말의 용굴發掘報告는 1980년에 4개의 팜프렛으로 發刊되었으며 「점말용굴발굴」(손보기), 「점말용굴의 자연환경」(손보기·박영철), 「층위 구분과 퇴적상황」(손보기·박영철·한창균), 「천정·벽면의 복원에 대한 연구」(한창균)를 통해서 보듯이 용굴 舊石器文化의 自然環境復元에 力點을 두어 化石骨 속에는 4개의 人骨片도 들어 있고 年代는 리스에서 氷期를 包含하는 것임을 主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四紀地質學 調査未備에 따른 情報不足으로 이 동굴堆積物의 粒子크기 分析이나 土壤成分檢査에 依한 自然環境復元 또는 年代觀의 正確性評價는 將次의 課題로 남겠지만 隣接科學과의 協力으로 우리나라 舊石器文化研究의 科學化에 힘쓴 努力은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도 코뿔소 前肢骨에 나타난 3개의 굽혀진 자국을 눈과 코라고 하여 人面表示 藝術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正確한 觀察이라고 首肯할 수 없으며 눈 또는 코라는 움직일 수 없는 特徵이나 顔面의 輪廓表示가 없는 이

자국 3點은 動物屐에 흔히 볼 수 있는 他動物에 의한 齒痕이나 其他 單純한 擦過·打痕이라고 判斷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藝術品에 대한 이와 같은 性急한 主觀的인 觀察의 公表가 孫寶基,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舊石器考古學의 水準을 對外的으로 格下하는 結果가 되는 것은 哀惜한 일이라 하겠다.

한편 前記 Clark는 여기 出土의 骨角器들과 現地를 見學한 다음 용굴은 이미 落盤되어 없어진 洞窟에 딸린 裂溝의 하나이며 骨角器는 모두 人工品이 아니어서 용굴은 하이에나, 호랑이 같은 食肉동물의 棲息處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다. 石壯里를 包含해서 Clark의 이와 같은 觀察은 國內學界에 波紋을 던졌으나 우리나라 舊石器考古學研究法이나 態度에 대해서 하나의 刺戟이오 啓示가 되었다는 데 意義가 있을 것이다.

孫寶基의 우리나라 舊石器考古學 發展을 위한 開拓者的 功勞는 아무도 否認할 수 없으나 文化와 遺物의 理解, 把握 및 考察에서 科學的인 客觀性이 要求되는 考古學에서 때로 主觀과 跳躍的 推理가 앞서는 印象의 學風의 影響源이 된 것은 아까운 일이라 하겠다.

孫寶基의 弟子인 李隆助는 韓國史論 1(1976年)에 「舊石器時代」라는 훌륭한 研究史를 發表하였고 1981년에는 淸原두루봉洞窟에 대해서 두 권의 中間報告書를 刊行하였다.

그는 두루봉 第2窟을 動物相으로 中期 洪積世의 間氷期에 該當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어 骨器·石器에 대한 製作法, 構成分布 등을 考察한 다음 骨製藝術品들을 舉論하였다. 그러나 이들 패어진 자국들이 있는 骨片들은 石壯里의 石片들에서 처럼 藝術品이라고 할 客觀性이 없으며 그러한 偶然的 遺物을 藝術品이라고 보는 것은 藝術品이 있어야 하겠다는 偏執에서 오는 主觀的 判斷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 藝術品에 대한 主觀的 觀察이 止揚되는 날 우리나라의 舊石器文化 文獻은 國際學界에서 研究方法의 科學性을 認定받고 우리 舊石器文化의 存在가 올바르게 받아 들여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1978년에는 偶然한 機會로 京畿道 漣川郡 全谷里 漢灘江畔에서 새로운 舊石器 유적이 駐韓 美國兵士에 의해 發見되었고 그 豫報는 鄭永和·金元龍의 「全谷里 아슐리안 兩面核石器文化豫報」(震檀學報 46·47, 1979年)로 發表되었다. 이 유적은 그뒤 1979년부터 서울大를 비롯한 몇개 大學에 의해 合同으로 發掘되고 있으며 아직 正式報告는 나오지 않았으나 金元龍·鄭永和·崔茂藏의 「韓國 舊石器文化研究」(1981年)에 比較的 仔細하게 報告되었다. 이 共同研究에서 崔茂藏은 韓國 舊石器文化全般의 概觀을 擔當하였고 鄭永和는 全谷里를 擔當하였는데 崔茂藏은 파리大學에서, 鄭永和는 보르도大學에서 各各 舊石器考古學의 訓練을 받았으며 특히 鄭永和의 報告文은 그 內容의 科學性을 通해 全谷里文化의 前期 舊石器임을 國內外에 認識시키는데 決定的인 役을 했다고 하겠다.

## 2. 新石器時代

1916年 鳥居龍藏은 우리나라의 先史土器中에는 주로 內陸地方에서 나오는 無文土器와 海岸·島嶼地方에서 나오는 有文土器의 두 종류가 있음을 指摘하였고(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 藤田亮策은 그 有文土器가 西北러시아·스칸디나비아地方의 櫛文土器(Kammkeramik)의 東傳形式이라고 보아, 이를 櫛目文土器라고 命名하였다(「櫛目文樣土器의 分布につきて, 靑丘學叢 2, 1930).

이 藤田說은 日本學界에 그대로 받아 들여져 시베리아 起源을 前提로 하여 우리나라에의 流入經路가 學論되었고 橫山將三郎은 그 土器가 沿海州 쪽에서 들어와 海岸을 따라 東海岸을 거쳐 西北韓으로 北上하였다고 보았다(橫山, 1934). 한편 櫛文土器와 無文土器의 先後關係에 대해서는 櫛文土器가 先이라는 意見으로 기울어 졌으나(笠原烏丸, 1936, 榎本杜人, 1953), 두 土器의 先後關係가 層位上으로 證明된 例가 없어 分布를 달리하는 共存土器라는 見解도 解放前까지는 남아있었고 그래서

1959年의 震檀學會編 韓國史(古代篇)에서도 共存說 비슷한 記述을 하고 있다. 그러나 1957年의 黃海道 鳳山郡智塔里遺蹟의 發掘은 層位的으로 櫛文土器가 無文土器보다 오랜 것임을 보여 주었다(都宥浩 등, 1957). 北韓에서는 또 1950年에 發掘된 弓山里 유적의 報告書도 같은 1957年에 나오고 있으며 이렇게 櫛文土器問題가 다시 擡頭되자 日本에서도 이에 呼應하듯이 三上次男, 有光教一 등의 論攷가 나왔고(三上次男, 1959, 有光教一, 1962) 1963年에는 佐藤達夫가 櫛文土器編年案을 내놓았고(佐藤, 1963) 美國의 위스컨신大學院의 博士課程學生二名(A. Mohr, L. Sample)이 東三洞에서 小規模發掘을 하기까지에 이르렀다.

三上次男은 于先 櫛文土器는 有文土器라고 불려야 한다고 前提한 다음 그 文化가 漁撈에만 依存한 것이 아니고 狩獵도 함께 하였다고 強調하고 無文土器文化와의 層序資料의 發見緊要性을 強調하였고 有光教一의 『朝鮮櫛目文樣土器の研究』는 櫛文土器에 대한 最初의 綜合的 考察인 터서 意義가 있지만 亦是 層序資料의 絶無로 無文土器와의 關係에 대해서는 結論을 내리지 못하고 櫛文, 無文 두 土器의 關係는 두 土器의 자세한 形式分類가 세워지고 層序關係로 그것이 補正되고 그 위에서 編年研究가 이루어져야 하겠는데 「그러한 研究는 적어도 二次大戰까지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p. 79)고 말을 맺고 있다. 佐藤達夫는 櫛文土器를 東北아시아新石器文化의 一環으로 보았고 東三洞의 層序는 後世에 뒤집어진 것으로 隆起文土器가 最新形式이며 日本의 細隆起文土器나 曾畑土器는 韓國櫛文土器와는 關係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自身들에 의한 南韓의 櫛文土器文化研究는 六二五動亂, 뒤이은 國立博物館의 文化財海外展示(57~59), 그리고 考古學人員의 絶對不足 등의 理由로 遲遲不振이었으며 1961年에 나온 金元龍의 廣州漢沙里遺蹟에 대한 地上調査略報가 이 分野 最初의 文獻으로 되어 있는 形便이었다.

이 略報는 遺蹟의 外部觀察과 地表採集品에 대한 報告文이지만 그 土器가 岩寺里土器와 같은 口緣部文과 器腹文(魚骨文)으로 된 半卵形의 典型的 形式이고 石器가 全部 打製礫石器로서 그것이 櫛文土器의 本源的 石器形式임이 指摘되었다. 그는 여기서 一點의 無文土器片의 存在에 注目하고 있으나 이 遺蹟이 櫛文土器(下層), 無文土器(上層)의 두 文化가 層位를 이루고 있는 것임은 미처 알아내지 못했다.

金元龍은 이어서 國立博物館과 서울大 博物館所藏의 採集破片들을 資料로 岩寺里文化에 대해서 考察하여(金, 1962) 다음과 같은 觀察들을 抽出하였다.

- ① 土器는 口緣, 器腹文으로 構成되는 典型西海岸形式이며 魚骨文은 縱走形式임이 特色.
- ② 點線으로 된 同心 U字文 文樣도 있으며 이것은 아마 蒙古地方土器와 關連.
- ③ 魚骨文이 大形化 하거나 簡化된 것도 있으며 이것은 後期形式으로서 時間的으로는 無文土器와 併行하였을 것.
- ④ 黑陶가 드물게 나오는데 이것은 無文土器人에 의해 받아들여진 周緣龍山文化의 要素일 것임.
- ⑤ 漢沙里式礫石器도 있으나 半月石刀를 包含한 無文土器文化의 磨製石器가 많다.
- ⑥ 따라서 岩寺里는 新石器時代에서 金屬期에 걸치는 長期遺蹟이며 그 後期・晩期는 無文土器와 겹치고 있다.

결국 岩寺里文化는 前期・後期로 나누어지되 前期는 典型的 魚骨文土器와 礫石器段階의 純粹新石器時代, 後期는 無文土器文化와 겹치는 段階이며 櫛文土器人들은 地域에 따라서는 金海期 初까지 계속 남아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櫛文土器文化自體를 前・後期로 나누지 못하고 櫛文土器의 後期가 無文土器와 겹치고 있었다고 본 것은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錯誤였으며 이것은 發掘에 依하지 않은 攪亂된 地表採集品을 同一文化層出土品으로 前提한데서 온 過誤라 하겠다. 그러나 이 漢沙里・岩寺里에 관한 두 報告文은 漢江下流의 西海岸櫛文土器에 대한 關心을

새로이 하고 岩寺里 遺蹟의 體系的 發掘의 必要性을 느끼게 하였다.

1963년에는 工事中 偶然히 發見된 春川校洞穴居遺蹟의 事後調查結果가 역시 金元龍에 依해 報告되어(金, 1963) 櫛文土器後期の 人工橫穴住居와 그것이 後에 家族墓로 使用된 特殊狀態 및 土器·石器, 그리고 거기에 反映된 東北韓과 西海岸文化의 混合樣相이 밝혀졌다.

이 1963년까지는 아직 우리나라 考古學의 새로운 體系가 세워지지 못한 段階였지만 南·北 各地에서 靑銅器時代, 古墳時代를 包含한 새로운 發見들이 꼬리를 물고 있어 金元龍은 1964年, 그 段階에서의 우리 先史文化를 一旦 「韓國文化의 考古學的研究」라는 題目으로 整理發表하였다. 여기에 發表된 것 중 新石器分野에 관한 主要한 見解들을 項示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有光·三上 등은 우리 櫛文土器가 嚴密한 意味에서 北歐의 소위 「櫛文土器」(Kammkeramik)와는 區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藤田의 說대로 우리 櫛文土器는 그 系譜上 시베리아土器와 連結되고 있다.
- ② 우리나라 櫛文土器文化는 南海岸을 包含한 西海岸形式과 東北韓形式의 두 地域形式 또는 文化로 갈라진다.
- ③ 櫛文土器는 西北韓에서 南海岸을 거쳐 東北韓으로 퍼져 올라갔다.
- ④ 前期 形式은 圓底·尖底의 典型的 魚骨文土器이며 後期形式은 平底나 平底에 가까운 圓底, 波狀點線文土器(例, 鳳山智塔里), 그리고 隆起文土器(東三洞), 雷文土器이고
- ⑤ 雷文을 비롯한 幾何學文刻線土器는 櫛文土器의 變形이라기 보다는 沿海州 石器文化圈의 別系形式일 可能性이 있다.
- ⑥ 櫛文土器後期 또는 末期에는 農耕이 시작되지만 이것은 典型櫛文土器文化에 半月形石刀가 없는 點으로 보아 無文土器人들과의 接觸을 통해 얻은 技術일 것이다.
- ⑦ 無文土器人과 櫛文土器人의 交替 即 櫛文土器人의 消滅은 北韓에서는 B.C. 6~7世紀 以前 頃이지만 南韓에서는 B.C. 1~2世紀 頃까지, 本土에서 떨어진 西海岸島嶼地帶에서는 金海時代 初까지 내려올 可能性 있음.
- ⑧ 九州의 曾畑土器는 櫛文土器의 變化形式일 것이고 소위 第二系(有文)彌生土器도 櫛文土器가 影響을 주었다.

以上에서 보듯이 1963年 段階에서는 金元龍은 櫛文土器時代의 後期에

는 無文土器人들이 이미 韓半島에 들어와 櫛文土器人들과는 住居地域을 달리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上記 岩寺里 論文에서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矢島의 경우 櫛文土器·金海土器 뿐 無文土器가 缺如되어 있어(58年 個人調查), 隔離된 地域에서는 櫛文土器人集團이 金海土器人들이 入住해 올 때까지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인데 이러한 見解는 이제 根本적으로 잘못으로 되어 있고 隆起文土器·雷文土器에 대한 年代, 系統觀도 역시 잘못이었다.

金元龍의 이 「考古學的研究」는 그것이 1963年 當時의 解放後 新資料에 依據한 解放後 最初의 考古學的 概觀이라는 點에서 學史的 意義를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서의 考古學的 立場은 傳統的인 歷史學的 考古學的 그것으로서 西川 宏도 지적했듯이(西川宏, 1970) 文化의 起源, 系統, 變遷을 中心으로 한 記述이었고 自然環境과 文化內容과의 相關關係, 文化變化의 過程原因 등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擡頭한 소위 新考古學(New archaeology)이 強調하는 問題들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또 基準資料의 殆無로 櫛文土器文化의 編년도 土器樣式에 依한 漠然한 前·後 二期區分이 힘의 限度였다. 이러한 韓國考古學 특히 新石器文化研究의 傾向이나 情報不均衡은 率直히 말해서 土器樣式研究를 根幹으로 하는 日本考古學的 影響도 크지만 新石器遺蹟의 徹底한 調查不足과 특히 隣接自然科學側의 協力을 받기 어려운 研究方法上的 制約도 作用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考古學徒나 歷史學徒가 우리 古代文化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큰 關心이 우리 文化의 起源·系統 등 問題인데도 그 原因의 一端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韓國新石器文化研究段階에서 東北아시아 先史文化專門家인 위스컨신大學 C. Chard 교수의 弟子며 博士課程學生들인 A. Mohr(男)와 L. Sample(女)은 1963年 우리나라로 와서 東三洞에서 制限된 小發掘을 하였다. 이것은 東北아시아 新石器文化圈 안에서의 우리나라의 樣相, 隣接文化들과의 關連相들을 밝혀보려는 意圖에서 였으며 이보다 앞

서 1962年, Chard 교수는 Arctic Anthropology를 創刊하면서 그 創刊號에 金元龍의 “Some Aspects of the Comb-pattern pottery of Prehistoric Korea”(Kim, 1962)를 掲載한 것은 이러한 自己側 研究 作業을 위한 우리 新石器文化研究現狀의 把握이 目的이었는데 거기에 開陳된 情報는 金元龍의 上記「考古學的 研究」(1964年)에 發表된 바로 그것 以上이 될 수 없었다. 「샘플」과 「모어」의 발굴 結果는 그뒤 샘플女史에 의해 報告文 兼 研究論文으로 完成, 그것으로 1967年 위스컨신大學에서 Ph. D. 學位를 받았다(Sample, 1967). 그리고 그에 앞서 1966년에는 그녀는 모어 및 지도교수인 C. Chard와 連名으로 그 研究에서 얻어진 結論中 몇 가지를 日本文으로 朝鮮學報에 發表하였다(C. Chard, A. Mohr, L. Sample, 1966). 그들은 東三洞土器를 7期 5形式으로 區分하고 그 初期年代의 一端으로 B.C. 2995年이라는 放射性炭素年代를 提示하였고 아울러 우리 櫛文土器와 시베리아土器와의 直接的 連關性を 否認하고 日本 曾烟土器와의 類似는 偶發的인 것이고 萬一 關連이 있다면 거꾸로 曾烟土器가 東三洞櫛文에 影響을 주었을 것이라는 主張을 하였는데 이 마지막 意見은 그들이 東三洞出土自然遺物의 鑑定 및 日本 繩文土器와의 關係考察作業을 日本에서 하였고 그 豫報도 日本文로 朝鮮學報에 실렸기 때문에 日本考古學界의 影響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것은 何如든 이 두 外國人學徒에 의한 東三洞貝塚에 대한 새로운 研究는 우리나라는 勿論 日本 考古學界의 우리 考古學에 대한 關心을 刷新하는데 效果가 있었다 하겠다.

이러한 外國學者들에 의한 우리 新石器文化의 研究와 때를 맞추어 우리나라에서의 櫛文土器研究도 遺蹟發掘이라는 本格作業으로 들어가게 되어 大學博物館協會에서 1967년에 岩寺洞遺蹟을 發掘했고 國立博物館과 서울大學校 考古學科가 合同으로 1969년부터 71년까지 東三洞 貝塚을 發掘, 1974년에는 國立博物館이 岩寺洞遺蹟을 다시 發掘하여 各各 成果를 올렸다.

金廷鶴의 「韓國幾何學文土器文化의 研究」(1968)는 그 前年의 岩寺洞 發掘結果 및 漢沙里, 富川郡長峯島·矢島 그리고 東三洞 등 유적에서의 採集品の 記述을 주로 하면서 아울러 우리나라 櫛文土器文化의 編年·起源 등에 대한 그의 見解를 發表한 것으로 櫛文土器代身 幾何文土器라는 이름을 提案한 다음

- ① 우리 幾何學文土器는 地理的 文化的으로 보아 시베리아로부터 또는 시베리아를 經由하여 傳來된 것은 틀림없다.
- ② 그러나 時代的 地域的으로 많은 變化를 가져온 것이므로 櫛文土器(Kammkeramik)라고 부르는 것은 適當치 않고 幾何學文土器 또는 幾何文土器라고 불러야 한다.
- ③ 櫛文土器의 原初形式은 尖底器形에 同一文으로 全面을 施文한 平南燕鳥里式土器이고 岩寺洞·東三洞은 中期, 平底에 가까운 瀛仙洞, 鳳山智塔里, 그리고 平底와 雷文土器를 내는 咸北農圃洞은 後期形式의 標式. (p. 53)
- ④ 東三洞의 幾何文土器의 年代는 新石器時代後期이며 黑曜石製石鋸를 통하여 日本繩文時代後期(B.C. 1500~1000년)와 平行할 것이다. (p. 44)

등의 結論을 내리고 있다. 다만 東三洞의 年代에 관해서는 한 쪽에서는 幾何文土器文化中期, 또 한쪽에서는 新石器時代後期(B.C. 1500~1000頃)라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形式으로서는 幾何文土器中期, 年代로는 新石器後期라는 것이 될 것이며 따라서 北韓에서의 雷文土器 등 櫛文土器後期形式과 年代的으로는 併行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다.

金廷鶴의 이 論文이 發表된 1968년에는 그 前年(1967年)에 北韓의 「考古民俗」에 發表된 新石器時代와 青銅器時代에 관한 概觀的 論文이 日文中으로 번역되어 朝鮮學術通報에 轉載되어 우리 學界도 그 內容을 알 수 있게 되었다(金勇男, 1968, 金用杆·黃基德, 1968).

北韓에서는 羅津草島(1949), 平南溫泉郡 弓山里(1950), 會寧五洞(1953~55), 平壤金灘里(1955), 江界公貴里(1955), 清津農圃里(1956), 鳳山智塔里(1957), 慈江道 時中郡 深貴里(1958), 義州美松里(1959), 茂山虎

谷(1959), 雄基屈浦里 西浦項(1960), 寧邊細竹里(1962) 등 新石器, 青銅器時代 유적들의 發掘結果를 통해서 1960년에는 「石器時代의 編年」, 「青銅器時代의 存否問題——金屬文化의 起源問題」, 「鐵器時代開始의 時期」 등 學術討論會가 열리는 등 新石器時代의 大體的 編年과 日帝時代에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던 青銅器時代의 確認이 이루어 졌는데 以上 두 論文을 통해서 그 內容이 整理紹介된 셈이었다.

金勇男의 「新石器時代」에 依하면 北韓에서의 新石器文化의 編年은 아래와 같다.

#### 早期(B.C. 4000年代~3500頃)

屈浦里西浦項의 I層 文化로서 몇줄기 點列口緣部文土器(平底)와 그 보다도 더 아래에서 나오는 抹角平底의 赤褐色無文土器로서 이 後者が 우리나라의 가장 오랜 新石器文化傳統을 反映한다고 생각한다. 집자리 平面은 抹角長方形. 石鍬의 存在로 農耕主張.

#### 前期(B.C. 3500~3000頃)

西浦項 II, 弓山 I, 岩寺洞 古期·魚骨文土器 즉 櫛文土器時期. 집平面은 圓形.

#### 後期(B.C. 3000~2500頃)

西浦項 III, 弓山 II, 東三洞·岩寺洞 一部. 魚骨文土器와 함께 文樣에 渦文, 曲線文出現. 이 時期 土器樣式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內蒙古·沿海州까지 넓게 分布. 집平面은 方形.

#### 晩期(B.C. 2500~1000年代初期)

金灘里 II, 農圃洞, 虎谷 등 유적으로 櫛文土器도 계속되나 雷文·隆起文이 出現하고 磨研과 酸化鐵을 바르는 方法 使用始作. 器形은 平底에 어깨가 생기고 손잡이 流行.

以上과 같은 4期 區分이며 우리나라의 櫛文土器는 內蒙古地方土器와는 關係를 가지나 시베리아나 北歐의 소위 櫛文土器와는 關係없는 別系土器로 보고 있다.

以上の 北韓側 新石器文化編年에서 눈에 띄는 것은 各期가 平均 500年씩으로 되어 있는 것이며 그것은 新石器時代의 上限과 下限을 먼저

定하고 그 사이를 四等分한 데서 나온 數字라고 생각되며, 實地文化段階의 變遷에 따른 것이 아니라 形式的으로 規格化한데 無理가 있는 듯하다. 그리고 上限을 B.C. 4000年代 即 第5千年紀까지 올린 根據는 明示되어 있지 않으나 東三洞下層의 炭素年代(2995年)를 前期의 末이나 後期の 初頃으로 잡는 한편 中國·日本 등의 年代를 參酌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韓國 建築史研究로 東京大學에서 學位를 받은 金正基는 그 論文의 先史時代部分을 1(櫛文土器時代), 2(無文土器時代)의 2部로 나누어 그 第一部를 이 해, 1968년에 發表하였다(金正基, 1968). 이 部分은 智塔里, 弓山里 등 解放後 새로 發表된 北韓側資料에 依한 것이며 이 時期 住居址의 發見例가 없는 南韓部分은 當然히 除外되었다.

한편 1968년에는 우리의 原子力研究所에 放射性炭素年代檢査施設이 생긴 記念스러운 해이지만 1969年 金元龍은 그때까지 알려진 南韓유적에서의 放射性炭素年代 13개를 紹介하고 아울러 우리 先史文化의 編年表試案을 내놓았다(金元龍, 1969).

이 編年에서 新石器時代를 大體로 前後의 二期로 나누되 그 上限은 B.C. 3000년 頃으로 하고 前期의 初期에 東三洞前期文化(I), 屈浦里 I層의 바닥(A)文化와 農圃里의 一部, 前期盛期에 漢沙里, 岩寺里, 北韓清湖里의 典型的魚骨文土器文化, 若干 늦어서 東三洞上層(II), 弓山, 智塔里, 美松里下層, 後期에는 岩寺里上層, 矢島(B.C. 1090), 春川校洞, 屈浦 I B 등, B.C. 1000年代에서부터 第1千年紀初에 걸친 文化를 各各 設定하였다. 그리고 金海農所里, 黑山島, 釜山岩南洞 등 晩期櫛文土器文化들은 B.C. 第1千年紀의 青銅器時代無文土器遺蹟들(楊州 水石里, 可樂洞, 加平 I, 坡州 玉石里, 江界 公貴里, 平壤 美林里, 茂山虎谷, 羅津草島 등)과 같은 時期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1970년에는 國立博物館의 韓炳三이 矢島貝塚의 發掘報告書를 통해 注目할 說을 發表하였다(韓炳三, 1970). 이보다 앞서 日本 京都大學에 一

年 留學한 韓炳三은 日本 考古學에서 流行하는 群·式 分類法에 따라 矢島 第1地區의 土器를 3群 19式(A~S)으로 分類하되 1群土器는 그 裝飾이 口緣部文과 器腹文의 둘로써 構成된 古典型式 系이며 2群은 그런 區分없이 거친 手法의 變形魚骨文系文樣을 그릇의 中間部分쯤까지 施文한 것, 第3群은 其他의 變形文樣土器로 하였다. 1, 2, 3群土器는 1地區에서는 아래에서 위까지 꼭 같이 섞여 나오나 2群土器가 主流를 이루고 있는데 對해 2, 3地區에서는 1群土器만이 나온다고 한다.

韓炳三은 第2群土器(全身 同一文樣, 바닥無文)가 無文土器와의 接觸을 示唆하는 要素들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岩寺里, 智塔里 등 本土遺蹟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延坪島 등 西海島嶼에 퍼져있고 또 江華三巨里, 坡州交河里 등 無文土器유적에서 無文土器와 混在하는 點 등을 理由로 本土內陸地方에서는 無文土器가 들어와 櫛文土器를 急히 消滅시키고 定着한데 反해 島嶼地方에서는 櫛文土器人들이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無文土器의 影響을 받아 土器가 變化하게 되었으며 第2群土器가 바로 그 變形櫛文土器라고 主張하고 있다.

결국 第2群土器가 主流로 되어 있는 矢島 第1地區는 本土에서는 이미 無文土器時代로 들어간 時代의 堆積이며 「波狀點線文이 많은 岩寺里土器」는 櫛文土器後期일뿐 아니라 漢沙里와 함께 古典型式이 못되고 또 櫛文土器유적 分布狀況으로 보아도 櫛文土器가 岩寺里·漢沙里에서 西海島嶼쪽으로 波及한 것이 아니라 西海島嶼쪽에서 漢江쪽으로 퍼져갔다고 主張한 것이다.

第1地區의 年代가 櫛文土器의 後期에서 末期에 屬하는 것은 事實이고 西海島嶼式이라고 할 수 있는 第2群土器가 主流인 것도 當然하나 岩寺里, 漢沙里 土器가 모두 櫛文土器後期에 屬한다고 본 것은 速斷이라고 생각되며 報告者가 古典樣式이라고 한 矢島의 第1群土器들은 實은 岩寺里, 漢沙里櫛文土器中 後期樣式에 屬하는 것이며 도리어 漢江櫛文土器의 後期形式이 矢島로 들어가 第2群土器 即 西海島嶼形式으로 變

化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何如든 이 矢島報告書는 南韓에서의 櫛文土器 유적에 대한 最初의 確實한 發掘報告書 및 本格的인 櫛文土器考察文獻이었으며 方法·結論 등 면에서 重要な 業績이라 하겠으며 뒤에 韓永熙 및 任孝宰가 使用한 施文構成形式分類法의 先驅가 되고 있다.

1973년에는 남편을 따라 우리나라에 와 있던 S. Nelson 女史가 漢江流域의 櫛文土器文化에 관한 研究論文으로 미취간大學에서 Ph.D.學位를 받았으며 이로써 우리나라 新石器文化研究로 美國에서 두사람의 女流考古學者가 博士學位를 얻는 特記할 事態로 發展하였다(S. Nelson, 1973).

넬슨 女史는 그 論文에서 土器의 型式學的 研究나 編年보다는 漢江下流의 新石器文化人들의 生活復元에 主眼點을 두어 美國考古學의 傳統을 따르고 있으며 季節에 따른 住居移動, 農耕, 採集, 漁撈, 狩獵에 의한 生活經濟 등과 함께 土器容量에 의한 統計學的 考察을 하고 있다.

한편 1967년에 東三洞研究로 學位를 받은 L. Sample은 1974年 그것을 다시 손질해서 Arctic Anthropology에 發表하였다(L. Sample, 1974). 이 論文의 骨子は 이미 1966年 日文으로 發表되었으나 샘플은 東三洞土器를 發展順序에 따라 朝島式(無文平底), 牧島式(隆起文), 釜山式(釜山有文), 頭島式(櫛文), 影島式(無文)의 5形式으로 分類하였으며 櫛文土器보다 앞서는 無文·隆起文 두 形式을 層位上으로 設定하였으며 이러한 先櫛文土器의 存在는 1969, 1970 兩年の 國立博物館, 서울大 考古學科 合同發掘에서도 確認되었다. 參考로 여기 土器形式名에 쓰인 地名들은 實地 地名과는 關係없으며 土器形式命名에 附近地名을 借用하는 美國式方法을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錯覺해서는 안된다. 그녀는 또 採取된 自然遺物을 통한 東三洞住民의 食糧採集狀況의 復原에 努力하였으며 年代에 關해서는 學位論文提出뒤의 새로운 放射性炭素年代들을 參酌하여 朝島式土器의 年代를 最少 B.C. 4000年代로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 先櫛文期土器의 起源에 對해서는 推測을 保留하고 있으며 藪(도도로끼),

曾畑(소바다) 등 日本繩文土器들과의 關係에 對해서는 앞서 말하듯이 그것들과 櫛文土器 사이의 類似는 皮相的, 偶發的이며 日本繩文土器片이 東三洞에서는 나오나 우리 櫛文土器片이 九州에서 나오지 않고 年代的으로도 日本이 앞서고 있어 두 土器 사이에 關係가 있다면 거꾸로 日本에서 우리 櫛文土器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何如든 이 論文은 조그만 試掘에 立脚한 것이지만 東三洞文化에 對한 最初의 科學的이고 綜合的인 整理요 考察이었으며 우리 新石器文化研究 面에서, 또 考古學方法 面에서 貢獻한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69~70년에 發掘된 東三洞의 報告書가 못나오고 있는 1970年代의 우리 新石器研究는 上記 두 外國人에 依한 것 以外는 거의 없다시피한 低調에 머물렀으며 71년에 金元龍이 시베리아의 실카遺蹟의 有文土器를 外國論文에 依해 再紹介하면서 櫛文土器의 시베리아系說을 계속 支持하였고(金元龍, 1971), 金貞培가 先史時代의 住民을 論하면서 新石器時代 住民을 古아시아族이라고 한 것(金貞培, 1972) 등이 70年代 初 것으로 있을 뿐이다. 金貞培의 論文은 櫛文土器를 濊貊의 濊族과 關連시킨 것(三上次男, 1952)을 反駁하고 金廷鶴의 古아시아族說(金廷鶴, 1967)을 더 補強한 것이었다.

그리고 1976年の 漢江流域 櫛文土器容量에 關한 任孝宰, Nelson 共同 論文은 Nelson의 前記 博士學位 論文의 一部이며 이 論文作成過程에서의 두 사람의 共同作業의 成果로서 土器片에 의한 口徑算出을 통해 土器容量을 統計學的으로 檢討한 結果 容量이 大體로 約 4l, 17l, 56l의 三群으로 區分되며 그것을 各各 飲食의 準備, 調理 그리고 貯藏의 機能을 反映한 것이라고 보았다(任, Nelson, 1976).

1978년에 發表된 韓永熙의 西海岸櫛文土器에 關한 論文은 清川江에서 漢江에 이르는 中西部韓國 및 西海島嶼의 櫛文土器의 綜合的 考察로서 櫛文土器를 發達順序로 (1) 口緣部, 器腹部, 底部의 文樣區로 構成되는

縱走文主流의 魚骨文土器, (2) 三區區分이 없어지고全體가 同一文樣으로 된 것, (3) 無文, (4) 한 줄기 隆起帶와 1, 2列의 손톱文의 4形式으로 區分하였고 1式이 이미 完成發達形式이기 때문에 아직 發見되지 않은 前段階形式이 있을 것이고 淸川江以北에는 1式이 없기 때문에 櫛文土器가 萬一 外部에서 왔다면 鴨綠江 쪽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西海로부터 大同江口地域으로 들어와 岩寺洞으로 퍼지고 거기서 西海島嶼쪽으로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韓永熙, 1978). 西海岸地口櫛文土器의 古典形式의 起源問題에 關係서는 資料上 어찌할 道理가 없었으나 層位와 形式을 함께 考察한 이 論文으로써 西海岸櫛文土器의 相對序列은 一旦 設定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櫛文土器研究를 위한 하나의 進展이라고 하겠다.

한편 1979년에는 櫛文土器遺蹟이 없었던 全羅道地方의 扶安界火島에서 櫛文土器關係遺物들이 全榮來에 의해 發見, 報告되었고 그 土器片들에 西海岸形式과 함께 釜山瀛仙洞土器와 닮은 것이 들어있고 또 軟玉製 도끼가 있음으로써 注目을 끌었다(全榮來, 1979).

1974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一年을 滯留하며 東三洞土器 및 遺物을 精査한 日本別府大學의 坂田邦洋은 1978年과 79年 두번에 걸쳐 自己가 1976년에 發掘한 對馬越高(고시다까)의 隆起文土器가 韓國製 아니면 韓國으로 부터의 移住民의 製品일 것이라고 發表하여 日本 考古學界에 波紋을 일으켰다(坂田邦洋, 1978, 1979). 韓國最古의 土器인 이 隆起文土器의 系譜에 關係서는 今後 여러가지로 學界의 論議對象이 될 것이 확실하다.

1980년에는 土砂採取로 消滅해가는 湓沙里 유적이 大學合同發掘團에 의해 發掘되어 그것이 櫛文土器와 無文土器의 두 堆積層으로 構成되는 유적임이 밝혀졌고 81년에는 任孝宰에 의해 襄陽鰲山里的 櫛文土器유적이 발굴되어 最下層에서 雄基屈浦里 I 式의 平底口緣部文土器, 中層에서 屈浦里 II 式의 櫛文土器, 그리고 上層에서 隆起文土器와 西海岸의 古典

形式櫛文土器가 함께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의 발굴결과는 아직 報告書로서 刊行되지 않았지만 여기서의 狀況으로

1. 소위 櫛文土器가 豆滿江流域의 平底口緣部文土器(屈浦里 1)에서 發展하되 그것이 豆滿江流域에서 이루어졌을 可能性
2. 屈浦里 1土器가 例를 들면 바이칼湖南쪽의 蜃卡土器(金元龍, 1971) 같은 시베리아 櫛文系土器와 關連을 가질 可能性
3. 隆起文土器는 그 起源은 如何든 釜山地方에서 出現하였으며 南海岸쪽으로는 뻗지 못하고 東海岸을 따라 襄陽近傍까지 北上한 局地的 土器였고
4. 西海岸櫛文土器는 豆滿江流域의 그것과는 關係없이 역시 시베리아의 櫛文系口緣部文土器에서 發展한 것이며 그것이 洛東江쪽으로 進出, 거기서 東三洞式太線魚骨文土器를 낳게 하되 마로, 그보다 먼저 漢江上流를 거쳐 東海岸으로 進出하였을 可能性

등이 생각되게 되었다.

1981년에 發刊된 金海水佳里貝塚 I (釜山大)은 金海長有面水佳里貝塚 第3地區 發掘의 報告書이며 報告者인 申敬澈은 水佳里土器를 I式(5, 6層), II式(3, 4層), III式(1, 2層)의 3形式으로 分類하고

I式은 櫛文(報告者는 幾何文이라고 부름) 中期形式으로서 圓底, 尖底, 平底의 無文·魚骨文式櫛文土器이며 魚骨文은 소위 太線式橫走魚骨文이다. 그러나 魚骨文만으로 全面을 덮은 것이 있다. 時代는 新石器 中期. I式 土器層에서 丹塗磨研土器도 나온다.

II式은 退化太線式이며 이 層에서는 無文形式이 많고 丹塗土器(4層까지만 있음)도 繼續된다. 新石器後期.

III式은 農所里, 栗里, 岩南洞式의 晚期有文土器이며 이 層에서 二重口緣無文土器가 나온다. 時代는 新石器晚期.

그리하여 이 水佳里發掘結果와 1977年の 崔鍾圭의 新石器編年案(釜大 碩士論文 未刊)을 土臺로 다음과 같은 南部地方櫛文土器編年表를 提案하였다.

	早 期	前 期	中 期	後 期	晚 期
申 敬 淑	平底隆起文 平底無文	尖底押引文 無文土器	水佳里Ⅰ式 (太線沈線文)	水佳里Ⅱ式 (退化形太線沈線)	胴上部有文 二重口緣土器
崔 鍾 圭	隆 起 文	押 引 文	沈 線 文	→指 頭 文	票 里 式

所謂 無文樣土器의 正體에 대해서는 좀더 論議의 餘地가 있는듯 하나 洛東江下流地域의 櫛文土器文化의 編年案으로서 合理的이라고 생각되며 東三洞의 土器相은 未發表이지만 大體로 이 表와 一致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金廷鶴이 始唱한 幾何文土器의 名稱은 그 나름대로 合理性이 있으나 櫛文土器라는 이름이 이미 國際的인 이름으로 굳어지고 있는 以上 그대로 襲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隆起文土器는 1978年 東亞大와 延世大가 合同으로 發掘한 慶南 統營郡欲知面上老大島貝塚에서도 確認되었으며 延世大發掘位置에서 알려진 4개의 文化層은 最下層에서 많은 隆起文土器와 少量의 無文平底土器, 그리고 脊稜이 있는 nosed 스크레이퍼, 그레이버, 또 複合石器로 看做할 수 있는 1~2cm 길이의 retouch된 細石器 등 流紋岩, 安山岩, 頁岩製 打製石器(그러나 石鏃 1, 局部磨研石器 1 包含)가 나왔고 그위 第2層에서 打製와 함께 刃部磨研石器가, 最上層인 第4層에서 增加된 量의 磨製石器, 石鏃, 碾石, 그리고 黑曜石이 初出되고 있다(張浩洙, 1981). 이 貝塚에서의 土器樣相에 關해서는 신숙정의 「上老大島 조개더미 遺跡의 질그릇研究」(1982)가 있으나 文體와 用語가 北韓것 보다 더 難澁해서 正確한 把握이 힘들다. 그러나 土器相은 隆起文, 平底無文朱칠, 櫛文 등 大體로 東三洞樣相과 같으면서 갈지字文(신숙정의 노젓기文) 등 새로운 文樣이 있는 것이 注目되었다. 하여튼 이제 洛東江江口一帶海岸地帶에서의 最古土器가 隆起文土器와 平底無文土器임은 分明하여 졌으며 特히 이 上老大島에서의 舊石器傳統을 示唆하는 石器樣相은 이 隆起文土器의 出自와 背景과 그 年代에 대해서 示唆하는 바가 많다

고 하겠고 滿洲와 日本을 비롯하는 周邊地域의 草創期 新石器文化에 대해서 正確하고 廣汎한 知識을 收合, 比較研究해야 할 것이라고 느껴진다.

이러한 問題와 관련해서 任孝宰는 「韓國櫛目文土器의 展開」(岡崎敬編 『末廬國』 1982年)에서 韓國에서의 現地調査와 九州에서의 現地研究를 土臺로 櫛文土器의 編年과 隣接土器와의 關係에 대해서 가장 새로운 見解를 發表하고 있다.

即 그는 櫛文土器를 文樣構成에서

A系 口緣部文과 胴部文이 서로 다른 것.

B系 口緣文과 胴部文이 同一한 것. 다시 말하면 全面을 同一文樣으로 덮은 것.

의 둘로 가르코 다시

I類 口緣部, 胴部, 底部의 三區를 모두 施文한 것.

II類 口緣部, 胴部만을 施文한 것.

III類 口緣部만 施文한 것.

의 3形式으로 分類하고 A I 群은 다시

A I a 口緣部文과 胴部文 사이에 點線文을 加插하지 않은 것.

A I b 點線文을 加插한 것.

의 두 亞式으로 再區分하였다. 그리하여 溇沙里, 鰲山里에서의 層位相 및 其他 遺蹟에서의 放射性炭素年代를 典據로

A I a → A I b → A II · B II → A III · B III

라는 樣式發展序列을 設定하고 新石器時代 前期는 A I a · A I b時期, 中期는 A II · B II時期, 後期는 A III · B III 時期라고 規定하였다. 또 시베리아土器와의 關係에 대해서는 否定的인 立場을 取했고 日本의 曾畑土

器와의 關係에 대해서는 曾烟土器의 三段區分施文法, 滑石補強胎土 등을 들어 櫛文土器의 影響을 받고 있음을 主張하고 있다.

櫛文土器의 施文 區分方法을 一步前進시키고 層位上으로 A, B 두 形式의 相對年代를 밝힌 것은 櫛文土器研究上 貢獻이었고 櫛文土器의 曾烟土器에 대한 影響은 이제 決定的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任孝宰는 溇沙里, 岩寺里의 A Ia 土器가 最古式의 典型櫛文土器라고 하고 있으나 앞서 韓永熙(1978)도指摘했듯이 A Ia式은 樣式上 이미 完成된 段階이며 그에 앞서는 段階의 存在가 當然이 想定되어야 하며 筆者의 생각으로는 豆滿江流域에서의 口緣部文만 가진 櫛文土器形式이 A Ia보다 앞서는 段階여서 그 口緣部文에 胴部文, 底部文이 添加되었다가 다시 거꾸로 떨어져나가는 過程을 밟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 初期口緣部文形式을 P式이라고 假定할 때 櫛文土器의 變化過程은 P→A→B의 順으로 되고 따라서 이 P段階를 前期에 앞서는 早期라고 불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끝으로 新石器時代農耕의 存在는 黃海道智塔里遺蹟에서 炭化穀의 出土로 確認되었지만 日本廣島大學의 安田喜憲이 中心이 된 韓日合同自然環境史研究班은 羅州附近(務安郡多侍面佳與里)의 濕原의 地表下 6m되는 層에서 벼 花粉을 檢出하였다(安田喜憲外:1981). 이 層은 上層의 C<sub>14</sub>年代와 堆積速度를 勘案하여 그 年代가 B.C. 1000年頃으로 推測되는 것이며 이미 이 時期에 榮山江下流인 이 地域에서는 稻作이 實施되었다고 생각되게 되었다. 이 年代는 아직 確實한 것이 아니지만 新石器末期에 該當되며 雜穀耕作이 大同江流域에서 더 오랜 時期에 實施되었던 만큼 新石器末期段階에서의 榮山江流域에서의 稻作은 充分히 可能性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 羅州花粉資料는 우리나라 新石器時代農耕研究에 대해서는 勿論 華中·華南地方과의 文化的 接觸問題에 대한 重要한 資料요 刺戟이라 하겠다. 또 이러한 새 情報은 우리나라 考古學과 自然科學과의 보다 緊密한 協力을 痛感케 하는 큰 刺戟이 된 것은 두말할 것

도 없다.

### 引用文獻目錄(가나다順)

- 笠原烏丸(카사하라) 1936 「櫛目文土器を 發見せる 朝鮮清湖里遺跡に ついて」 人類學雜誌 51-5, 6 pp. 183-197, 256-267.
- 樞本杜人 1953 「朝鮮」 史學研究會編 人類文化史叢書 1, pp. 201-213.
- 金元龍 1961 「廣州漢沙里櫛目文土器遺蹟」 歷史學報 14, pp. 133-145.
- 金元龍 1962 「岩寺里유적의 土器石器」 歷史學報 17·18, pp. 355-383.
- 金元龍 1963 「春川校洞穴居遺蹟과 遺物」 歷史學報 20, pp. 1-27.
- 金元龍 1964 「韓國文化的의 考古學的研究」 韓國文化史大系 1, pp. 237-313.
- 金元龍 1969 「韓國考古學에서의 放射性炭素年代」 考古學 2, pp. 1-16.
- 金元龍 1971 「시베리아 쉐카洞窟의 新石器文化」 柳洪烈博士還曆紀念論叢 499-513.
- 金勇男 1968 「朝鮮의 新石器時代」 朝鮮學術通報 V-5, 6.
- 金用杆·黃基德 1968 「朝鮮의 青銅器時代」 同上.
- 金正基 1968 「韓國堅穴住居址考 1」 考古學 1, pp. 31-60.
- 金貞培 1972 「古朝鮮의 民族構成과 文化的 複合」 白山學報 12, pp. 3-58.
- 國立博物館 1970 矢鳥貝塚(韓炳三)
- Kim, Won-Yong 1962, "Some Aspects of the Comb-pattern pottery of Prehistoric Korea] Arctic Anthropology 1-1, pp. 42-50.
- 金廷鶴 1967 「考古學上으로 본 韓國民族」 白山學報 1, pp. 133-150.
- 金廷鶴 1968 「韓國幾何文土器文化的의 研究」 白山學報 4, pp. 1-100.
- 고고학민족학연구소 1957 弓山原始遺蹟發掘報告.
- 고고학민족학연구소 1961 智塔里原始遺蹟發掘報告.
- 西川宏(니시카와) 1970 「朝鮮考古學に於ける系統論について」 考古學研究 17-1, pp. 5-14.
- Nelson, S. 1973 「Chulmun-period Villages on the Han River in Korea: Subsistence and Settlement」 미쉬간大學 Ph.D.論文.
- 도유호·황기덕 1957 「지담리유적 발굴중간보고 1, 2」 문화유산 57-5, 6.
- 三上次男(미카미) 1959 「朝鮮における有文土器の分布とその擴がりについて」 朝鮮學報 14, pp. 309-321.
- 三上次男 1952 「東北アジアに於ける有文土器社會と穢人—朝鮮に於ける櫛目文土器社會と穢人」 朝鮮學報 3.
- 釜山大學校博物館 1981 金海水佳里貝塚 1(申敬澈).
- 坂田邦洋(사카타) 1978 『韓國隆起文土器의 研究』,

- 坂田邦洋(사카다) 1979『對馬越高尾崎における 繩文前期文化の 研究』.
- 佐藤達夫(사또오) 1963「朝鮮有紋土器の變遷」考古學雜誌, 48-3, pp.14-31.
- Sample, L.L. 1967『Culture History as Chronology of South Korea's Neolithic』  
위스컨신大學 Ph.D.論文.
- Sample, L.L. 1974 "Tongsamdong; A Contribution to Korean Neolithic Culture History". Arctic Anthropology 11-2. pp.1-125.
- 申叔靜 1982「상노대도 조개더미 유적의 질그릇 연구」延大 碩士論文(油印).
- 安田喜憲(야스다)・金遵敏外 1981 韓國における環境變遷史
- 橫山將三郎(요코야마) 1934「釜山府絶影島東三洞貝塚調査報告」史前學雜誌 5-4.
- 任孝宰・Nelson, S. 1976「漢江流域櫛文土器의 容量抽出과 그 文化的 意味」韓國  
考古學報 1, pp.117-121.
- 任孝宰 1982「韓國櫛目文土器의 展開」岡崎敬編『末盧國』pp.86-96.
- 有光教一(아리미즈) 1962『朝鮮櫛目樣土器의 研究』.
- 張浩洙 1981「上老大島 조개더미 유적의 석기연구—뎨 석기의 만든 수법을 중심으로—」延世大 碩士論文 (油印).
- 全榮來 1979「扶安界火島山上新石器時代遺蹟」全北遺蹟調査報告 10, pp.3-24.
- 震檀學會 1959 韓國史 古代篇.
- Chard, C外 1966「朝鮮新石器時代土器編年に関する新資料」朝鮮學報 26.
- 崔鍾圭 1977『幾何文土器編年表作成을 爲한 小考』釜山大學 碩士論文.
- 韓永熙 1978「韓半島中西部地方의 新石器文化—土器編年을 中心으로」韓國考古學  
報 5, pp.17-108.